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2:1~14)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목사님,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요? 맞지 말아야 하나요?”, “목사님, 코로나 백신 맞고 잘못되면 어떡해요?”

요즘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도 신문방송에서 위험성을 떠들어대며 두려움을 주고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발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무려 1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하셨지요? 저도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신 개발자들을 통해 역대 가장 최단기간 내에 백신을 개발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맞아야 할까요? 맞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방역 당국에서는 국민들에게 백신 맞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자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디 호락호락한 일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래, 어여 가라.’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홉 가지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강박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얹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맏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찌라”(출11:5), 이 재앙만 남았습니다. 이에 앞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출12:18~22).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출12:23). 다들 모세의 명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지침을 무시하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찌 되었을까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같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문설

주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계속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도 다 안 되었는데 못 맞지.’ 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죽하면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incentive)까지 준다고 할까요?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이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코로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들로 인해 가족이, 사회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라는 것도 없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그리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앉지 않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가대와 율동이 있는 예배가 그리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기도원집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시청 집회도 하고, 해외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저도 백신을 맞았고, 해외집회팀에게도 잔여 백신을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잦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뱀이 떠나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민21:8). 그래서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며 쳐다보지 않은 자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라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백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한 마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집 꼭대기로 피신했지요. 어느 사람이 집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배가 다가와서 어서

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배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 줄

거라며 거부했습니다. 배가 떠나고 그는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헬리콥터가 다가와 줄을 내리며 이 줄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니 가라고 했습니다. 헬리콥터도 떠나고 이 사람은 결국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줘서 이렇게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나는 네 기도에 분명히 응답했다.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다. 네가 거부한 거야.”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백신을 개발케 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나 의학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빌립처럼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실 수 있지만, 비행기를 발명케 하사 비행기를 타라 하신 것이고요. 포도주가 마트에 가면 많은데, 굳이 물을 넣고 기도하여 포

도주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목회 초창기에 제가 시골길을 가는데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주유소가 없는데 말입니다. 마침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집 슬레이트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주유구에 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동차는 달릴지어다.’ 하고 서울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만 물을 넣고 기름이 되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넣어라.” 하실 것입니다.

배 아플 때 소화제 먹는다고 죄가 아닙니다.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병으로 곧 죽게 됨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께 방성대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미쳐 궁을 빠져나가기 전 다시 살리라고 전해주라 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무화과를 찢어 그 반죽을 종기가 있는 자리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왕하20:7). 그러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천사를 부릴 수도 있지만, 의학이나 과학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코로나를 창궐케 하는 것은 마귀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롬14: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거 다 마귀가 그러는 거야.” 하며 쥐어박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막11:24).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순신케 하듯, 백신을 주신 하나님이 부작용 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며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유로운 날이 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한다는 조사통계가 나왔습니다. 미혼과 이혼, 그리고 사별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UN 통계를 보면 출산율은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이고, 14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은 낮고,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출산 등을 포기한 N포세대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고, 믿음의 가정들의 대가 끊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결혼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결혼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서로가 도우며 힘을 합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의 목적이 변질되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결혼하고,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체면치레 때문에 막대한 결혼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신혼 때부터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을 선호하니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세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예식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유를 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쳐내고 아름다운 결혼의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100점짜리 배우자를 찾는데 눈 씻고 찾아보아도 100점짜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배우자는 50점짜리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100점짜리는 만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며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 자신을 개혁하자!

“네가 안했잖아, 네가 안했잖아, 네가 안했잖아...”

근래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을 뜨겁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마 11:27).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사 53:5). 주님의 가난함은 우리로 부요케 하심이다(고후 8:9).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 9:23). 이렇듯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며, 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안 된다며 불평을 일삼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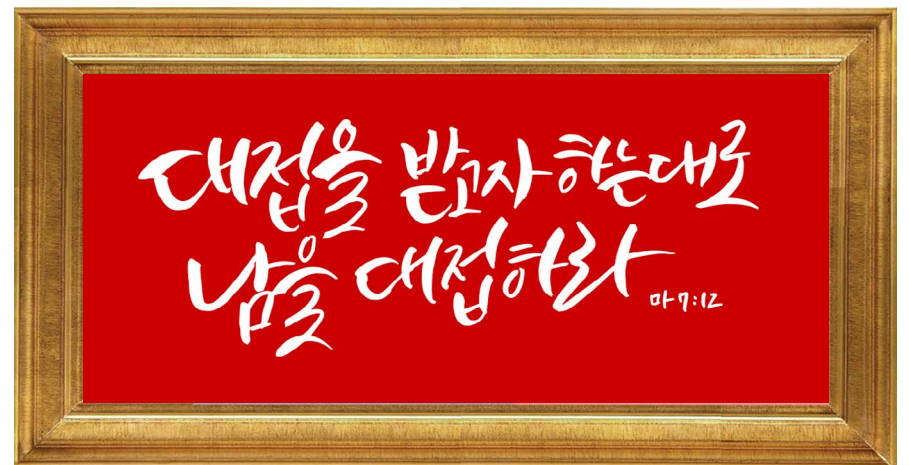
말씀하셨다. 복 받고 못 받는 것, 잘되고 못 되는 것,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민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라.”고 말씀하셨다(사 1:16).

그렇다. 이제 나 자신을 개혁하자!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고 핑계대지 말라. 머리로는 믿어도 손이나 발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기는 삶이 될 수 없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마 7:7).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절실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에 따라 응답의 양과 질은 달라질 것이다.

잊지 말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김상욱 목사



:: 간중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한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새롭게 깨닫는다. 또한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 설교를 듣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나를 만나고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기도원 집회나 총회장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교육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대학부

모두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총회장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는 수련회에 전원 참석하곤 했다. 기도원 집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새신자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영혼이 깨어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 선교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있었다. 그 결과, 2019년도 여름 기도원집회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중국인 성도 20명을 기도원집회에 참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가깝고도 먼 중국 땅에서 어떤 이에게는 총회장 목사님을 직접 뵈는 것이 평생에 단 한 번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항공권 예매도 그렇고, 한족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회장 목사님을 직접 뵈 수 있다는 소망과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졌고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후 하나님께서 50명의 성도로 부흥시켜주셨고, 2개의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목사와 선교사 임명식을 결실로,

나는 더 이상 중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10월 1일 서울시장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 도중 중국공항에서 입국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다. 공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위기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번에 중국에서 추방된 것을 목사님께 보고 드리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며 힘을 주셨고, 2019년 12월 1일부로 문산교회로 파송 받게 되었다. 파송 받은 문산교회는 넓고 좋은 성전이 있었지만 층고가 낮은 통에 스크린이 앞사람에 가려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발령을 받자마자 한 기도가 새 성전을 위한 기도였다. 층고가 높은 성전에 LED화면을 설치하여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다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 3개월여 만에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응답해주셨다. 코로나에도 아랑곳 없이 문산교회 전 성도와 함께 21일 작정기도를 마친 바로 그 주 토요일, 평소 다니는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하나님께

는 ‘우연’이 없다, ‘필연’이었다!) 층고가 6미터 이상인 이 성전을 처음 보게 되었고, 주일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린 후 월요일 계약을 하고, 화요일 박인덕 목사님께서 공사지휘 차 방문하신 것을 시작으로 6주 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26년 동안 이 교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의 가족과 부모형제,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내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총회장 목사님과 내가 섬기는 주의 종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교단이 흥해야 했기에, 나는 죽어야 했고 쇠하여야 했다. 나는 일반 달란트 빛진 자이며 진심으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한다.

마지막 때 이 교단을 세우시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며 동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문산교회 장순천 목사

:: 믿음의 터를 다시여::

:: 참된 깨달음 ::

“Are you JESUS?”

과거 신학대학원(M.div)을 같이 다니던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보내준 설교 예화입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나를 돌아보는 글이기에 소개해 올립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안에 이런 예화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쏘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채소와 과일 박스를 차버렸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풀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풀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먼저 가라며 일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채소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채소를 주워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풀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채소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풀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풀의 행동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풀이 채소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한 풀이 “예수라니요?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풀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me for JESUS(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코로나19로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듯 성찰하며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

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1~42).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마지막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가시에 찔리면서도 예수 향기를 날리는 작은 예수가 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종심교단 성도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re you JESUS?”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텐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 웅달샘 ::

모성애(母性愛)는 진하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심히 아름다웠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급의 왕이 이를 두려워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차 없이 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행히도 사내아이여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키웠을까요. 행여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 먼저 자식을 죽여 반은 미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 신고가 들어갈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히11:23). 모성애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숨

길 수 없이 되매”(출2:3) 아이를 갈대상에 놓어 강에 띄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침 애급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상자 속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아이는 애급의 궁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유모라는 이름으로 온 어머니의 젖과 사랑을 먹으면서!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출애급기 2장을 살펴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몸부림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피를 쏟으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성애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게 우리는 귀하디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분은 몸부림치십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며 자식을 키웠듯이, 당신의 이름으로 온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모세가 유모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듯,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자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성애 이상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49:15~16).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중세 유럽에서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 때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성까지 태워줄 수 없겠냐는 부탁에 착한 농부는 그 부인을 태워주고 한참을 가다보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소름끼치는 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부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으니 내리시오.”,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장 당신부터 죽이겠소.”, “그렇다면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다줄 테니 다섯 명만 죽이시오.” 꼭 다섯 명만 죽이기로 약속을 받은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성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천명도 넘는 시체들이 즐비해있었고, 화가 난 농부는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섯 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 많은 시체들은 무엇이요?” 그러자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뭘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의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처럼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를 붙이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